사순 제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변화는 하늘의 빛나는 별을 붙잡고 길을 떠나는 것이다!

잠들기 전, 내일은 기도로 아침을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는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담배부터 입에 문다. 다시 밤이 찾아오면 운동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잠든다. 그러나 일어나면 스타벅스에 가고 있다. 항상 다짐하는 바이지만, 오늘까지만 담배피고 내일부터는 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언제나 담배 물고 새아침을 맞이한다. 30년 넘도록 이를 반복하고 있다. 정말 지-겹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변모, 곧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껏 나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았다. 참 민망하다.

그렇게 몸부림쳐 봐도 잘 바뀌지 않는 저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답을 얻으려 길을 떠났던 오이디푸스 왕처럼 잠시 집을 나서보도록 하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약속된 땅으로 떠났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그리 대단한 곳이 아니었다. 사실 우크라이나 땅이 더 비옥하다. 또 그곳은 밭 메는 아줌마도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 여인을 만났더라면 아마 200년은 더 살았을지도 모른다. 기분 좋아서 말이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풀어야할 숙제였다. 이는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맞춰지는데, 그에 따라 그들의 믿음도 깊이에 깊이를 더한다. 이것이 곧 회개다. 회개(μετάνοια:메타노이아)는 'μετά'(-후에)와 'νοια'(인식/생각/이해)가 합쳐진 단어다. 하여 '무엇을 인식/생각/이해한 후'라는 의미다. 예컨대 김태희보다 더 예쁜 우크라이나의 밭 메는 여인을 보고 난 후, 그 나라로 이민 가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는 회개한 자가 된다. 곧 회개는 이전의 상태와 **다르게** 생각하고 지금을 **다시** 생각하고 내일의 방향을 **새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변화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는 법이다. 그런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개가 왜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다른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자리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다는 슬퍼하고 후회하기만 했지, 변화되지는 않았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요한 21장 참조) 대신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안고 주님을 따랐다. 바오로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분리된 두 자아(Ego)를 경험했다. 정말 고뇌에 찬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 자신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갈라 2,19-20) 분명 전/후가 다르다. 이 달라짐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자리이지만, 사람들은 흔히 전자를 경험할 뿐이다. 후자, 곧 은총의 체험에로 나아가는 것은 드물다. 왜 그럴까? 은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추어져 있는 까닭이다. 은총을 체험하지 않고서 이 신비를 깨닫기란 매우 어렵다. 하여 천국을 볼 수 있는 **안경**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열쇠**, 또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변모산에서 주어졌던 것이다.

덕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히브 11장 1절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는 말씀과 16절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는 말씀에 힘입어, 저 약속된 땅이 바로 **하늘**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여 회개는 한계를 넘어가는 은총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며 변화는 희망을 안고 자유에로의 길로 기쁘게 나서는 것이다. 이 손길을 붙잡고서, 나도 발버둥쳐 보련다!

전동혁 베드로 **신부** | 신시내티 한인성당 (미국)

연작 십자가의 길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반송 본당 주임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날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길을 떠나는 작은 차를 본다. 자신의 차 위에 쌓인 눈을 버겁게 느꼈을까 아니면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여겼을까. 만일 힘겨운 짐이라고 여겼더라면 눈을 치워버리고 길을 떠났을 것이다. 아마 운전자는 자신의 차 위에 쌓인 눈을 두고도 더 신나게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어느 날 우리 자신을 짓누를 것 같은 무겁고 힘겨운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여겨질 때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마치 차 위에 눈을 얹고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나는 운전자처럼 어떻게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힘에 겨운 무게로 자신을 억누르는 십자가를 매고 대신 길을 떠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는 그 말씀에 왜 마음이 아려오는 것일까.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인지, 대신 져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내 마음을 보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십자가를 만들어 지워준 이

이른 아침부터 십자가로 쓸 나무를 다듬으면서 누가 어떤 죄를 지어 이런 험한 벌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얼굴과 몸에 수없이 맞아 핏자국이 선명한 피투성이의 그를 내 앞에 데려오기에 내가 만든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지워주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애처로워 보여 도와주고 싶지만, 단지 생각뿐 결국 그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여기고 말았다. 힘든 것에 대해서는 너의 몫과 나의 몫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약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사는 당연한 방법이지 너를 위해 대신이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베드로

언젠가 당신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에, 제가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반박을 하였을 때, 저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싫고, 저 역시 당신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 질 용기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온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니, 저 역시 참으로 용기가 없지만 당신을 따르기 위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떠한 십자가라도 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따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성모 마리아

피가 눈앞을 가리게 만드는 가시관, 채찍에 맞아 피로 범벅이 된 옷, 어깨에는 곧 짓눌려버릴 것 같은 커다란 십자가를 진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자녀가 한 대를 맞으면 내가 백대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여느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아들 예수님을 보는 내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 한다.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결과가 십자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세상 사람을 다 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 소리를 쳐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벌 달라고 빌고 싶지 않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악함이 아니라 선함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

어디 성한 곳 없이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 되어 더 이상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나에게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는다. 사실은 십자가의 나무 무게보다, 십자가를 지우며 마음껏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의 무게가 나를 더 힘겹게 만든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이 아니고, 손가락질로 네 탓이라고만 하는 인간을 대신해 내 탓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나 역시 이 순간이 되니 너희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목까지 올라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닌 인간을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또 나를 지키는 유일한 위안거리인 것이다. 그 순간은 나를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우신 그 뜻이 이해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겠지. 나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도행전 읽기 4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도 바오로의 스승이며 유다 최고 의회 의원이던 가말리엘의 현명한 제안(5,35-39)으로 제자들은 매질만 당한 뒤 풀려납니다.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복음 선포에 더욱 전념합니다(5,40-42). 숨어다니지 않고 공공연히 활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경외감이 듭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요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숨어다니는 잘못된 신앙을 지닌 이들과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의 첫 문제와 일곱 부제의 선출 (6,1-7)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6,1)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온 외국 출신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2,5-13 참조) 루카는 그들을 그리스계 유다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아람어 대신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도들처럼 히브리계, 곧 아람어를 쓰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간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히브리계 유다인들에 비해 아무 기반이 없었던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여러 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게다가 이 두 그룹 간에는 신학적 견해에서도 차이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히브리계 유다인이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2,46; 3,1; 5,12. 21) 그러나 그리스계 유다인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스테파노의 경우는 성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7,48-50) 이런 생각과 환경의 차이는 매일 배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일 배급'이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는 순례자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와 극빈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그들을 장기적으로 돕기 위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마련하곤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배급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계 과부들이 유다계 과부들보다 홀대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다 사회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하느님 말씀 선포에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일곱 봉사자를 뽑자고 건의합니다. 온 공동체는 사도들의 건의에 동의하여 일곱 봉사자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의 안수로 최초의 일곱 부제가 탄생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테파노,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오스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의 영도 아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느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스테파노의 체포와 죽음 (6,8–8,1ㄱ)

일곱 부제 가운데 하나인 스테파노는 은총과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스테파노와 같은 그리스말을 쓰는 이방계 출신 유다인들이 와서 스테파노에게 논쟁을 겁니다. 하지만 스테파노에게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스테파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겨 스테파노를 붙잡아 최고 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스테파노가 과연 무슨 말을 했기에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어지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최고 의회 산헤드린에서 행한 스테파노의 설교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스테파노가 나자렛 사람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또 모세가 물려준 관습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실제 스테파노는 대사제 앞에서 구약의 역사 전체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스테파노의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요약하는 명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스테파노는 유다인들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역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조상들이 예언자를 박해한 것처럼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예수님마저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배신하였음을 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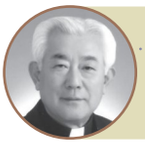
이 이야기를 하는 스테파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6,15) 이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스테파노의 비난을 들은 최고 의회 의원들은 화가 나서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노가 성령에 충만해져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 오른편에 서 있는 예수가 보인다고 말하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바치며 눈을 감습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은 루카-사도행전 설화의 흐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죽음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와 스테파노의 죽음 이야기는 모두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사람의 아들에 대해 언급합니다.(루카 22,69; 사도 7,56) 그리고 예수님과 스테파노 모두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루카 23,34; 사도 7,60) 또한 둘 다 죽음을 맞으면서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루카 23,46; 사도 7,59) 이와같이 사도행전은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활동이 스테파노에게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졌듯이 그들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현장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7,58) 게다가 그 청년은 스테파노 죽음에 찬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8,1) 하지만 바로 그 청년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스테파노가 맡았던 그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어지는 단락들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스테파노는 예루살렘 성 동쪽 문, 곧 오늘날 사자 문이라고 부르는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 성문을 우리는 스테파노 성문이라고도 부르고, 양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양의 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치던 짐승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스테파노는 바로 이 양의 문 앞에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알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용백(요한) 신부
2016년 3월 13일

교구/본당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11일(수)
장소: 중앙동, 경화동
일시: 3월 18일(수)
장소: 덕산동, 용원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시: 3월 16일(월) 13:00~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매주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3월 17일(화)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매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매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자격: 만 50세 미만 남·여신자
시기: 5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문의: 회장 010·8525·1150

기 타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춘천교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캠프
일정: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초등(6차)13.5만 원 /중고등(2차)14만 원
신청: 3월 9일(월) 09:30 온라인 신청(선착순)
문의: 청소년활동부 033·255·660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교구 성경공부
4월 첫주 개강합니다.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6월 19일 KOREAN AIR 알프스 수도원 순례 오스트리아(3박) 독일(2박) 스위스(5박) 12일 489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SM 수맥흙(돌)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항출발 ,미사4회, 성지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 순례 1박2일
15개 교구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우리농 생명공동체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응모자격**: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 **응모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응모마감**: 2020년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원 (소설 70만원)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

지난 3월 2일 익명의 후원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칠천만 원을 마산교구 사회복지국에 기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교구 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본당 등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례	문 의
교 구	3월 한달동안 코로나 19로 성령기도회는 쉽니다.					010·5072·5612
창원지구	3월 한달동안 코로나 19로 성령기도회는 쉽니다.					010·9421·3377
청 년	코로나 19로 성령기도회는 쉽니다.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3월 15일(토)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칼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PALBO FOOD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솝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와 함께하는 사순 시기 묵상집

사순 시기의 디딤돌

교구 사목국에서는 교우들이 의미 있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 판공 찰고지〉와 〈사순 시기 묵상집〉을 마련해 왔습니다. 2003년까지는 교리를 비롯한 성경, 교구장 사목교서에 관한 내용을 찰고지 형식으로 준비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그 형식을 달리하여 복음 말씀과 순교자들의 삶, 교회 가르침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2007년 「평신도 교령」을 시작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2013년 신앙의 해), 「간추린 사회교리」(2015년), 칙서 「자비의 얼굴」(2016년 자비의 해),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2017년)과 회칙 「찬미받으소서」(2019년),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2020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서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황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문헌들을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나 유익하고, 특별히 교황님의 권고와 회칙은 그 시대에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와 특별 전교의 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와 함께 하는 이번 묵상집은 지난해 10월에 있은 '특별 전교의 달'과 연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각자의 고유한 성덕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이 권고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성덕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권고와 성덕을 살아간 이들

묵상집은 권고 내용과 함께 성덕을 살아간 이들의 삶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왼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고 성찰 내용을 적는 부분을 마련하여 부활 판공성사의 성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성덕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들, 특히 20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애덕과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한 이들의 삶을 실었습니다. 가급적 성인품에 오르지 않은 이들을 선정하였고,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전교의 달'을 맞아 사목국에서 시행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에 당선된 교구 내 신자들의 사연도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이들 가운데에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 이면에 가려진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덕의 삶과 수록 기준에 대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닌,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들 역시 그 여정 중에 있었거나, 지금도 가는 중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성덕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저마다의 고유한 성덕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교황님의 권고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성덕의 소명을 되새기고, 다른 이의 성덕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며, 그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는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되시길 바람해 봅니다.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창세 12,1-4ㄱ
화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 서	2티모 1,8ㄴ-10
복 음	마태 17,1-9

주일 전례